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02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오랜만에 열리는 공식적인 1박2일 행사로 2023 나행리더스워크숍이 봉하연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전엔 ICE Breaking을 통해 친해지는 시간을 먼저 가졌고, 간단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오후엔 조별로 미션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늦은 시간엔 나눔과행복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전 봉하마을 투어를 끝으로,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공유, 공감하는 가치를 이뤄가기 위해 같이 모여 나가자는 의미를 '따로 또 가치'에 담았습니다.

매순간 각 팀별 OKR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Vision 2025를 함께 공감하고 이뤄나가는 그 좋은 시작점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기억은 봉하연수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병원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따로 또 가치'

2023 나행리더스워크숍 1박2일 (02.11~12)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3 재활센터 OKR (02.07)

▲ 지난 12월 팀리더 워크숍을 통해 센터별 OKR를 수립하였었고, 이때 수립한 재활센터 OKR을 가지고 올 1,2월에 각 팀별 OKR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재활센터 구성원인 진료부도 함께하였고, 치료1팀, 치료2팀, 간호팀, 사회사업팀, 재활코치팀의 발표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KR 파티 & New OKR

2월2일 일상재활센터와 외래재활센터 워크숍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협업을 통해 낮병동-외래-사회로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였으며, 1·2부 구분하였습니다.

1부는 일상재활센터, 외래재활센터 전 인원이 협업을 위한 공통의 OKR을 선정하였고, 2부에는 각 센터별로 각 센터의 특성에 맞는 OKR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원장님 참석하에 OKR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재활외래·일상재활센터 워크숍 (02.02)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간호팀과 원장님이 함께하는 '소담소담' (그랜드 라운딩) (02.07/02.28)

생활재활센터(병동)의 치료적 환경 조성과 전문재활간호사로서의 역할정립,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재활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간호팀과 원장님이 함께 그랜드라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일에는 5생활재활센터, 28일에는 8생활재활센터를 원장님, 간호팀장님, 해당병동 파트장님이 참여자 병실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생활의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등 참여자와의 알찬 라운딩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의 병원 및 병동생활에 있어 병원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애씀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뜻깊은 라운딩이었습니다.

간호팀 워크숍 (02.11)

6층 회의실에 간호팀장, 간호부팀장, 병동파트장, 병동부파트장, 병동 주무간호사 분들이 모여서 2023년 간호팀의 OKR을 마련하고 병동에 적용하여 참여자와 내부 직원 만족을 기하며 간호팀의 역량을 높이고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 해나행 승진자 타운홀 미팅 (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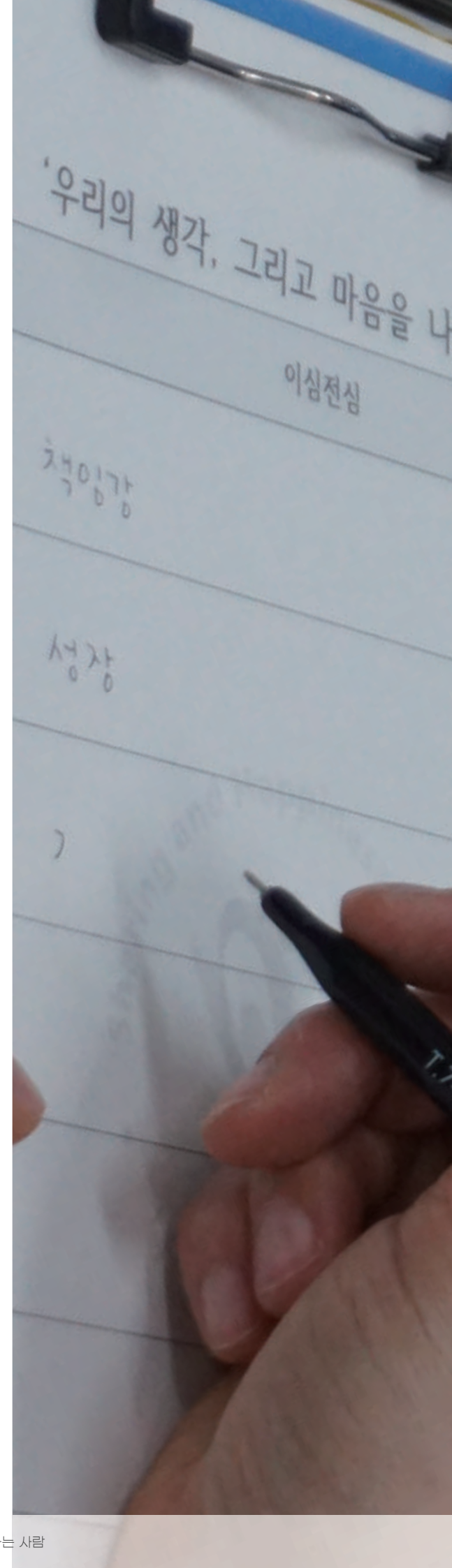
올해 해나행 승진자분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분들이 그 동안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과 감사로 자부심을 느끼고, 개인-팀-센터-병원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나누며, 단지 해(연차)가 되면 승진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절차로 승진가치를 공유했습니다.

병원장님의 감사와 응원 말씀, 그룹별로 이심전심 함께 마음나누기, 자기평가서를 보며 리마인드 해보기, 소감나누기 등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심전심'에서 나온 키워드는 연결 · 소통 · 책임감 · 리더십 · 성장 · 수당 · 보호막 · 적극적 · 솔선수범 · 설레임 · 부담감 · 협력 · 관심 · 믿음과 신회 · 코칭 · 축하&감사 · 회상 · 고민 · 생각 등이 나왔으며, 이는 모두 함께 나눈 생각 마음입니다.

다음주 도약식의 매끄러운 행사 진행을 위해 주무 승진자 16명 임명장을 미리 수여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장애를 넘어 일상의 삶으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최성호 강사 (02.11)

사회복지제도 : 알기 쉬운 지역사회자원
사회사업팀 박선미 팀장 (02.18)

걷기만 하면 다 건강해 지는가?
동서대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안하나 교수 (02.25)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 #1
토분만들기 (02.08/02.15)

채움 도자기공방 김지성 작가와 함께하는 토분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보호자, 직원 모두 흙이 가진 고유의 질감을 손끝으로 직접 느끼고 향긋한 흙내음을 맡아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마다의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토분을 정성스럽게 제작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함께 흙도 빚고 몸도 마음도 빚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빚 : 다

흙을 빚다
마음을 빚다
몸을 빚다

9층 하늘공원에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기록하기 위해 소망의 벽에 나의 소망타일 남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채움 도자기공방 김지성 작가님을 모시고 많은 참여자 및 보호자분들과 직원분들이 함께 자신들의 소망을 타일에 남겨봤습니다.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 #2
타일 만들기 (02.27)

건강소품인 팥 찜질팩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팥은 붓기 제거 노폐물 해소 어깨 통증에 좋아 참여자 및 보호자의 어깨나 쌓여있는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로 감정을 공감하고 응원해주는 딕싯카드 아이스브레이킹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더 풍성하게 더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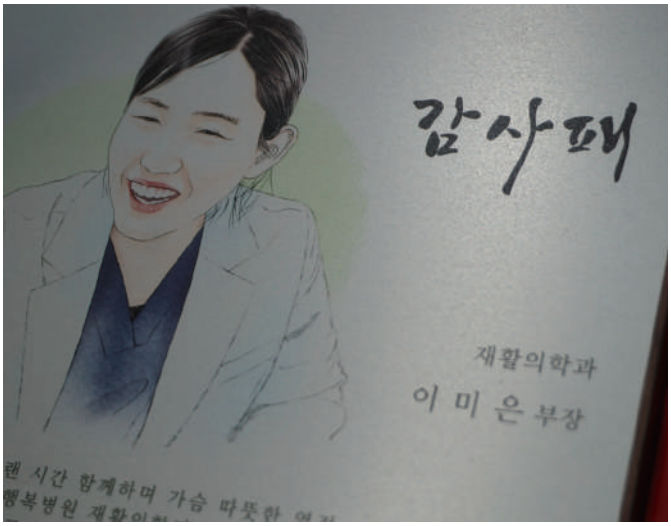
이벤트 프로그램
팥 찜질팩 만들기 (02.16)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룹치료 프로그램
곶감 디저트 만들기 (02.22)

낮병동, 외래 참여자 및 보호자와 함께 곶감을 활용한 디저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반을 가르고 크림치즈를 발라 호두토핑을 얹고 돌돌말기도 하고, 곶감 속에 치즈를 깔고 샤인머스캣을 넣어 살짝 얼린 후 잘라서 먹으면 더욱 맛있는 디저트입니다. 색다른 레시피를 공유하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고급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하며,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과 어울리는 동사는
‘잊다’가 아니라 ‘접다’일지도 모릅니다.



내과·내시경센터 ‘김 희’ 진료부장님
퇴임 감사패 전달식
(02.24)

재활의학과 ‘이미은’ 진료부장님
퇴임 감사패 전달식
(02.27)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1월의 신규입사자

소화기내과 고인영 진료부장

건강증진센터 방정은 간호조무사

간호팀(8W) 차지훈 간호사

재활치료2팀 김동현 작업치료사

간호팀(8W) 정은주 간호사

영양팀 박지영 조리원

재활치료2팀 박경준 작업치료사

재활치료2팀 손가이 작업치료사

재활치료2팀 윤주만 작업치료사

재활치료2팀 정윤환 작업치료사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시「방문객」중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 참여자’ 치료비 전달식 (02.10)

이○○ 참여자는 저소득층으로 비급여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여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외부재단에 치료비 지원을 의뢰하셨습니다.

그 결과 12월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5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 받아, 비급여치료인 언어치료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신문

난치병 환우에게 새 생명을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017면 사람들

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치료비 절실

〈289〉 뇌출혈로 실어증 박경란 씨

박경란(가명·53)씨는 매일 새벽 5시에 가게 운영을 시작하고 다른 업체에 생선 납품일도 하며 착실하게 생활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생선을 납품하던 업체에서 대납을 받지 못해 점점 부채가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 2021년 5월 뇌출혈이 발병했다. 발병 초기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돼 재활병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전문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받지 못했고 가족 단절로 장애등급 또한 신청 시기도 놓쳤다.

사정을 알게 된 누나들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고 큰 누나의 자택에서 생활하면서도 재활·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의료비가 부담이었다. 그러던 중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물리·작업치료는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언어치료는 비급여로 매달 약 5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드는데 이는 두 누나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두 누나도 저임금 노동자로 생계가 어렵다. 박 씨는 매월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지만 이 중 20만 원은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로 보내고 있다. 박 씨는 언어치료 교재를 보며 혼자 연습하는 등 적극적이며 말 사전을 보며 힘을 내고 있다. 담당 복지사는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 주 5회로 적극적인 언어치료가 가능하다. 추후 다양한 분야에서 구직도 가능하게 돼 사회복귀도 빨라질 수 있어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명지 기자

BNK 부산은행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국제신문 공동기획

▶후원 계좌-부산은행 040-01-035763 ㈜예금주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국민은행 115301-04-141525 예금주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051)853-0429

<출처: 행복한 BNK & 국제신문
http://www.happybnk.co.kr/User/Hope01_View?msgIdx=3074 >

장애인청년인턴 및 현장매니저 지원 사업 참여기업 간담 (02.21)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부산광역시「장애청년인턴 및 현장매니저 지원사업」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3월부터 우리병원과 함께하게 될 장애청년인턴은 발병 후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길에 우리병원이 함께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사회적 책임을 또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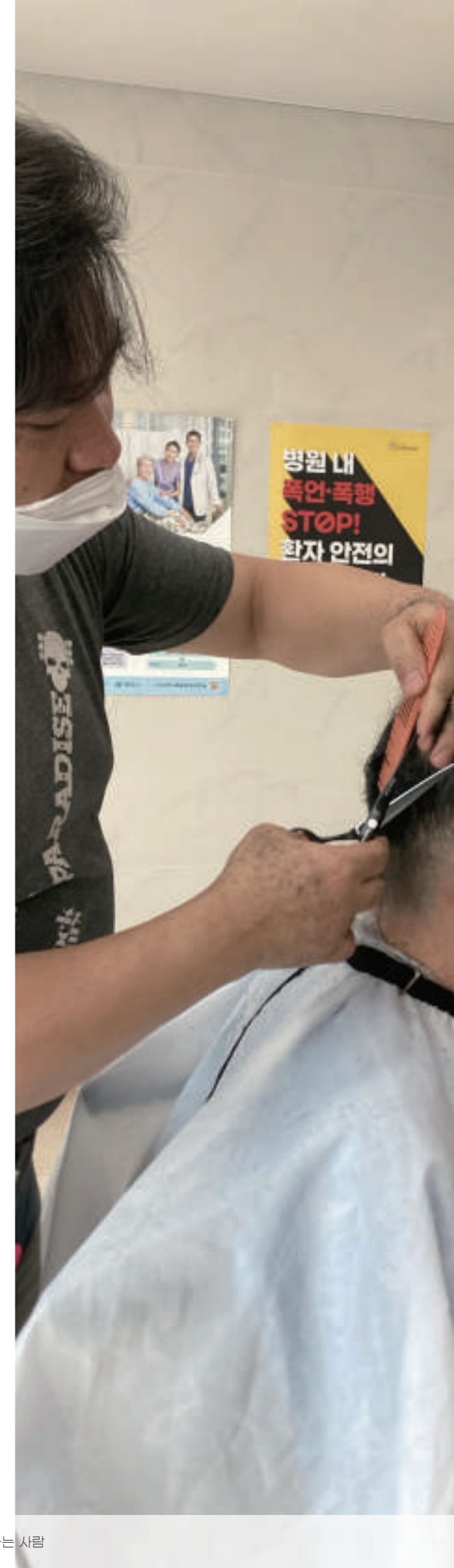
재가의료급여사업 가정방문 (02.07)

지난해에 시작되었던 나○○ 참여자의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가 2월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사회사업팀, 간호팀, 진료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건강체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사회사업팀이 함께 나○○님 가정을 방문하여 참여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살피며 심리·정서적 지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02.21/02.24)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핵심습관 깜짝 이벤트 1.2.3 (02.15)

조직문화성장실에서 핵심습관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 '해나행 전체 단톡방'에 '진정성'을 담아서 이모지 반응을 잘 해주신 11명, '
2. 팀의 단톡방' 팀 공지사항에 이모지 반응을 하신 분들 준 팀장님들의 '공정함'으로 선택된 11명,
3. 프로모션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이모티콘을 선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주신 1명에게 깜짝 이벤트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새로고침 발렌타인 이벤트 1.2 (02.15)

제2회 새로고침 프로젝트가 진행중인데 2/14일 발렌타인을 맞이하여 새로고침 위원회에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 발렌타인 당일 걷기, 2/14일 하루 동안의 걷기 순위로 선물 증정
2. 2/1일부터 위원장 확인 시 순위로 선물 증정

이벤트 별로 4등, 14등, 24등, 34등, 44등, 54등, 64등, 74등, 84등, 94등을 선정하여 2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일상재활센터 (낮병동)

출석왕 자립왕 수상

(02.03)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열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사실, 오늘 아버지에게 제일 미안해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감정의 민낯을 드러낼 일이 드물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12살 아들이 말을 건넨다. 나는 말이 없었다. 그저 괜찮은 듯 아빠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다. 아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지만 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아들의 등교시간과 나의 출근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지가 같아졌다. 엘리베이터를 마다하고 계단을 이용해 3층에 올라갔다. 아직 문을 열기전이라 자동문은 수동으로 되어있었다.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나는 접수대로 향했고 아들은 대기실 소파에 몸을 맡긴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 코로나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직 진료전이라 9시까지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8시 50분을 지나고 있었고, 아들과 나는 그렇게 앉아서 600초를 기다렸다. 굵고 짧은 바늘이 숫자 9에 머물고서야 아들의 이름이 불려졌다. 녀석은 뒤뚱거리며 어느 방으로 들어갔고, 기침소리가 나고서야 마스크위에 코를 감싸며 나왔다.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15분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 어제 저녁 집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했고, 한 줄이 나와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아들은 증상조차 경미했기 때문이다. 빨리 음성이라는 결과를 듣고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15분 뒤 아들의 이름이 불렸다. 보호자인 나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양성입니다."
"네.. 네?!?! 양성이라구요?"

순간 나의 귀를 의심했고, 나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 녀석은 양성이라는 단어보다 아빠의 격양된 목소리에 더 놀라는 눈치였다. 의사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듯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나갔고, 의사와 간호사가 지시해주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자동문을 나온 우리 둘은 계단을 이용해 약국을 향하고 있었다.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약을 타고나서야 '나도 검사를 해야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올라가 동거인으로 검사를 했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병원 문을 나서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다행이 아들의 컨디션은 좋아보였다.

"아들, 괜찮아. 아들도 처음 겪고, 아빠도 처음 겪는 일이잖아. 너무 걱정안해도 되니깐. 엄마한테 전화해서 학교에 못 간다고 연락하자."
"아버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출근이 늦어져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100퍼센트의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어떤 가면을 쓰고 있죠. 예의를 차려야 하고, 멋져 보이고 싶고, 약점은 숨겨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감정의 민낯을 드러낼 일도 드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의 민낯을 볼 수 없어 오해를 하고,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합니다.
_유병욱《평소의 발견》(북하우스)

이날 아들의 코로나 양성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감정표현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작은 아들과는 달리 큰 녀석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감정표현을 잘한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자기감정에 충실한 아이가 가끔은 부러울 때가 많다. 그럴 때면 아이가 곧 어른이다. 어느 순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백퍼센트의 자기를 들어내지 않으며 생활한다. 나라는 얼굴에 나다움이란 가면을 쓰고, 감정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지내고 있다. 그러니 어린 아들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피어내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 일인가?

조금 늦은 출근길이다. 봄 햇살은 더욱 강렬했고 나는 목적지를 향해 운전대를 잡았다.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어 9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뜬금없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감정표현에 문득 나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9년 전 여름, 의식이 없던 나의 아버지. 임종을 눈앞에 두고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다. 몸에는 온갖 선들이 붙여져 있었고, 호흡은 산소마스크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제 곧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선생님 말이 이어졌다. 산소마스크가 뿌예지다 투명해졌다를 반복했다. 모니터의 숫자가 낮아지고 그래프가 일직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감고 있던 아버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지고 나서야 모든 게 멈췄다. 나는 끝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귀를 닫으신 채 하늘나라로 가셨다. 죽음 앞에서도 그 흔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로 대신했던 것이다.

10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문득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 본다.

"사실, 그날 아버지에게 제일 미안했어요."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편집인 홍보기획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